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양형 시민참여 도서관 정책의 미래



최 성

경기도 고양시장
sunhwalee@korea.kr

들어가며

1990년 시청 도서관실에서 시작한 고양시 도서관은 25년 동안 시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노력으로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환경 및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 교육과 주거환경 1위, 주민자치 평가 1위 도시로 성장한 근거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도서관이 있다.

민선6기 고양시 시정 방침인 “시민이 주인인 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그동안 고양시 도서관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보고, 성과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과 한계의 반성 위에서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고양형 시민참여 도서관 정책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양시 및 도서관 현황

고양시 현황

고양시 인구는 완만한 증가 추세로 2014년 8월 1일 전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가 되었다. 남녀 구성비는 남자가 49.4%, 여자가 50.6%로 여자의 구성비가 높으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년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의 시민 66.6%가 고졸 이상이며, 25~40세 미만 시민의 교육 수준은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다수의 고학력 젊은 층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 도서관 현황

2014년 7월 고양시는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책으로 여는



100만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8대 핵심정책,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8대 핵심 정책은 ▲ 365일 안전한 도서관 ▲ 공공·작은·이동·학교도서관의 네트워크 추진 ▲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 ▲ 도서관 시설 적극 개방 ▲ 도서관 자체 평가제 도입 ▲ 도서관 제도 정비 ▲ 대표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제고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몸집이 커진 도서관 조직을 3과 체제로 분리하고, 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서들을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하였다.

고양시는 1990년 시청 문예회관 내 도서실 개관을 시작으로 1994년 시의 첫 공공도서관인 행신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아 2014년 10월 현재 16개의 공공도서관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수, 회원 수, 대출실적 등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뽑은 고양시 도서관 best 5

책 읽는 고양시민

고양시는 2014년 6월 말 기준 195만 여권의 도서 대출 실적을 기록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정착한 시민들이 ‘고양’을 가치로서의 고향으로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배경에는 도서관에 대해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다.

또한, 도서관별 특성화를 통한 장서의 전문성 제고로 공공도서관이 갖추기 힘든 전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시민들의 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고양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크게 대상별, 주제별로 구분하고 그 외 협력 및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동아리, 재능 나눔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우리에서는 일주일 내내 도서관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삶에 참여할 수 있다. 아기를 위한 꼬물꼬물 책놀이,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과 나, 청소년을 위한 직업특강,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심리 상담사, 책놀이,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 과정, 어르신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까지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별 장서의 특성화에 따른 주제별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중복과 획일성을 피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서관별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도서관 운영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관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작은도서관 1:1 매칭 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 및 장애인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 도서관 한 동아리 갖기 운동의 결과로 도서관별 독서토론, 그림책 읽어주기, 연극, 인형극, 뮤지컬, 북아트, 역사 등 51개 동아리가 결성 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시 도서관은 지역 내 각종 단체와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아람미술관은 고양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에게 관람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도서관은 미술관 전시와 관련된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세계적인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그림책 음악회를 진행하여 시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고양문화원과 함께 고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고양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도서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민참여단

고양 시민은 도서관 운영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13년 봄에 결성된 시민참여단은 도서관별로 도서관 전문가,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 기구로 도시락(도서관+시민=樂), 고도리(고양시 도서관을 이끄는 모임), 고시레 등 다양한 애칭을 직접 지었다. 시민참여단은 연간 5~6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서관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서관을 통한 주민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이 특성화대! 주제별 특화도서관 운영

고양시 도서관은 시설, 장서, 프로그램 분야에서 다각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설분야에서는 도서관 입구에서부터 해당 도서관의 특성화 주제를 알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사인물을 정비하였다. 장서 부분에서는 그해 자료구입 예산의 10%를 특화도서 구입비로 책정하여 지속적인 특성화 자료를 확충하고 있으며, 자료실 입구에 특화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4월 말 관내 상호대차 실시로 특성화 도서의 대출 회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장서



특화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자료구입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프로그램 분야의 특성화는 양적, 질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도서관별 대표 프로그램이 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성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전국 최초 '트랜스포머형' 이동도서관 운영

고양시는 지난 5월 배움과 문화와 놀이가 공존하는 트랜스포머형 이동도서관을 선보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트랜스포머형 이동도서관은 책과 서가 중심이던 기존의 이동도서관을 탈피하고, 시민들과 오감 체험 및 다양한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고자 기획된 국내 최초 찾아가는 교육문화체험도서관이다.

새로운 이동도서관 책놀이터는 자동 개폐시설과 무대 기능을 포함시켜 기존의 좁은 공간과 한정된 도서관 서비스를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타 시군에서 이동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이색도서관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개선점

고양시도서관은 1994년 첫 공공도서관인 행신도서관 개관 이후 급격한 인구 팽창에 보조를 맞추고자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고에 한계가 있다.

첫째는 여전히 도서관의 열람실 기능이 부각되어 자료서비스 확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 열람실"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시는 2007년 개관한 아람누리도서관을 열람실 없는 자료 중심의 도서관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도하여 현재까지 고양시 거주 작가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 자료 대출이 가장 많은 도서관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둘째는 자료실에 사서가 없다는 점이다. 고양시 도서관은 도서관법상 한 도서관에 기본 3명의 사서를 두어야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이 9개 관이다. 도서관별 2명의 사서가 수서, 정리, 문화행사, 자료실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가 자료실에 상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서에 대한 이미지 및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이 협력하여 시민들이 관내 공공도서관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위한 상시 협의체 등이 없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시급하다.

또한, 100만 인구 중 도서관 회원이 43만여 명으로 다소 낮은 회원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다. 비독서 인구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하여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고양시 도서관 정책 방향

열린도서관_시설개방

도서관은 더 이상 책만 빌려보는 장소가 아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스터디그룹, 취·창업, 공연과 전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 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총 31개 시설, 1,7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별 교양교실, 시청각실, 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먼저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도서관의 유휴공간을 개방 공간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섬기는 도서관_특성화 서비스

우리는 도서관 운영에 특성화를 도입하여 경쟁력과 시민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주제별 특성화를 돌아보고 재검토하여 고양시의 역사, 주요 시설, 행사 등을 도서관 특성화에 제대로 담아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주문화제, 킨텍스, 한류월드, 작가들의 도시 등이 도서관에서 자료와 함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상생의 도서관_시민참여가 활성화된 거버넌스형 도서관

고양시 도서관은 도서관별 시민참여단과 전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자치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 조직을 도서관 운영 조례에 포함시키고, 과별 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형식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탈피해 나가고자 한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의견은 시민참여단 - 지역분과위원회 - 도서관 운영위원회 체제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공유의 도서관_문화프로그램 공유

우리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100만 시민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13년부터 시립도서관 우수동아리 공연을 DVD로 제작하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부하였고, 2014년에는 관내 초등학교까지 확대 배부하여 자료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였다. 일부 프로그램은 강사들의 협조로 강의를 촬영해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프로그램을 문화행사 담당자가 프로그램 맛보기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SNS를 통해 고양시를 전국에 널리 알린 고양이를 활용한 책잔치 홍보 및 블로그 기자단 모집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서관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방송 경기케이블, 지역신문 고양신문 등과도 협력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맺음말

고양시는 현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향후 시민들의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는 작은도서관 증설을 통해 해소하고, 상호대차, 특성화, 공공·작은·이동·학교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시민 참여 등을 통한 시민 친화적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RFID 통합 구축을 통한 U-library 구현,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도서관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보소외계층을 감싸 안는 도서관 서비스를 추진하여 100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서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고자 한다. ●